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제8주 -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편 111:1-10 다함께
- 찬 송(Opening Hymn) 55장 다함께
- 교독문(Responsive Reading) 48번 다함께
-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였고,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저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때마다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던지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과 진리를 좇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또한, 그 열매를 보는 자마다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교회가, 성도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Apostles Creed)다함께
- 성경봉독(Scripture) 말라기 1:6-14 인도자
-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 봉 헌(offering) 1장 다함께
-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 찬 송(Hymn) 362장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피자와 도넛이 준비되어 있으니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2.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실 경우 카카오 라이브톡을 통해 계신 곳에서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예배를 원하시는 분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4. 교회창고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제목>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 속히 종식되어서 무고한 희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 전쟁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식량공급에 차질이 생겨 빈곤과 기아의 위기에 처한 국가들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시도록
- 미국 대법원의 낙태법 판례 폐지 이후 주 정부와 의회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그리고 처음 헌신했던 마음을 늘 지키며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 모든 성도님이 언제 어디서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 박현숙 성도님(좌골신경통 및 빈맥증) / 서희숙권사님(항암치료중)

<말씀묵상> 말라기 1:6-10

6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나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 들은 그 아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뎌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뎌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 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7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기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 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8 만군 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 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나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러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가납하겠느냐 9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공홀히 여기 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 사르지 못하게 하 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 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1. 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그분의 이름을 멸시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6-8절)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섬니까?

2. 제사장들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9-10절)

❖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사랑으로 유지되고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주인과 왕이 되심을 역사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애굽 종살이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선물로 주셨고, 그 땅에서 강성케 하 셧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부요함이 도리어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숭배와 영적, 도덕적 타락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나라는 하나님의 심 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은 끝나지 않았고 식지 않았습니다. 70년 만에 다시 그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거거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처음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잠시,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 다. 가장 거룩하고 순전하게 드려야 할 제사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분을 멸시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권위자에게도 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께 버젓이 행하고 나서도, 도리어 그들은 뻔뻔 하게 반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자 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강박해지는 가장 무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이후로 400면 동안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감격도 감사도 없고 나의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 드리고 있지만 않다면, 나 역시 마음이 강박해져 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에 금이 가고 있다는 것 입니다.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